"미안해…잊지 않을게…" 전국이 다시 울었다

세월호 참사 1주기

전국 126곳 추모행사…정계·종교·가요계도 '노란 리본'
이완구 총리·김무성 새누리 대표 안산 분향소에서 쫓겨나
진도 팽목항·인천 연안부두, 씻김굿 공연 등 1주기 추모식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전국 126곳에서 추모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정부에 대한 불신이 최고조에 달한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은 1주년 추모식을 취소했으며, 이완구 국무총리는 물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및 유승민 원내대표 등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정부합동분향소에서 발길을 돌려야했다. 진도와 경기도 안산을 중심으로 전국 곳곳, 각계각층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당시를 기억하며 희생자의 넋을 기렸다. 서울, 인천, 수원,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제가 열렸고, 가요계·스포츠계·종교계·정계 등도 이날 하루 침통함 속에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했다.

경기도 안산시에서는 오전 10시부터 1분간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도시 전체에 울려 퍼졌다. 피해지역인 와동, 고잔1동, 서부3동 게양대에는 '하나의 작은 움직임이 큰 기적을'이라는 노란 깃발이 펄럭였다. 택시와 버스 2800여 대는 노란 리본을 부착하고 운행했다.

진도 팽목항에서는 아이들의 꿈을 앗아간 세월호가 잠들어 있는 야속한 바다를 바라보며 추모식이 열렸다. 세월호 참사 진도군 범군민대책위원회 주최로 열린 추모식에는 이낙연 전남지사와 이동진 진도군수, 자원봉사자, 종교인, 지역 주민 등 3000여명이 참석했다. 진도 국악고등학교 학생들의 추모공연과 함께 시작된 추모식에는 세월호의 지난 1년을 담은 영상이 상영됐다. 이어 진도 학생이 직접 쓴 추모 편지 낭독, 추모 풍선 날리기, 씻김굿 공연 등이 이어졌다.

이낙연 전남지사는 이날 "팽목항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인양한 세월호 선체를 이곳에 전시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세월호를 생생히 기억함으로써 세월호의 재발을 영구히 막아야 하며 세월호 선체를 조속히 인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월호의 출항지였던 인천에서는 이날 오후 2시 연안부두 해양광장에서 일반인 희생자 1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정부는 이날 국민안전처 주최로 서울 강남구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제1회 국민안전의 날 국민안전다짐대회를 개최했다.

국민안전의 날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후속대책 담화에 따라 제정됐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세월호가 침몰한 4월 16일 행사를 연다. 가요계에서도 세월호 1주기인 16일 온라인을 중심으로 다양한 추모 움직임이 나타났다.

김장훈, 윤종신, 김윤아, 조권, 민아, 윤도현 등 가수들은 세월호 사태에 안타까움을 표출한 글이나 그림 또는 노란 리본 이미지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애도의 뜻을 표했다.

서울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의 사찰에서는 이날 오전 10시를 기해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실종자의 귀환을 기원하는 타종 행사가 진행됐고, 천주교도 서울과 진도 팽목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이날 추모 미사를 봉헌했다. 오후 1시 진도 팽목항에서는 광주대교구장 김희중 대주교가 집전하는 추모 미사가, 오후 6시에는 서울 명동성당에서는 염수정 추기경 주례로 추모 미사가 열렸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등 개신교계도 추모에 동참하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연합뉴스

조문 거부당한 이완구 이완구 국무총리가 16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세월호 사고 희생자 정부합동분향소에서 전명선 가족대책위원장 등 유가족의 항의로 조문을 거부당하자 인사한 뒤 돌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들 분향소 폐쇄해 만남 불발…곳곳 항의 피케팅

朴 대통령 팽목항 방문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진도군 팽목항을 방문해 희생자를 추모했다. 박 대통령의 팽목항 방문은 작년 5월 4일 이후 11개월여만이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그동안 가장 진정성 있게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보가 무엇일지 다양한 형태의 추모 행사들을 놓고 고민해왔으며 팽목항을 방문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방문에 대해 "그날의 아픔을 가슴에 깊이 되새기고 앞으로 같은 비극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세월호 사고 발생 다음날인 4월 17일 세월호 실종자 가족들이 머물던 진도체육관을 찾아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해상의 세월호 침몰 현장을 방문해 구조 활동을 독려했다. 이어 같은 해 5월 4일 진도 팽목항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도 했다.

그러나 1년 만에 찾은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을 볼 수 없었다.

당초 박 대통령은 현장에서 희생자·실종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 위로할 예정이었으나, 가족들이 박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분향소를 임시 폐쇄하고 팽목항을 떠나는 바람에 불발로 끝난 것이다. 정오에 팽목항에 도착,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 이낙연 전남지사 등의 안내를 받아 팽목항에 마련된 분향소로 이동했으나 분향소가 닫혀 있는 바람에 헌화와 분향도 하지 못했다. 다만 박 대통령은 분향소 앞에 있던 실종자 9명의 사진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이주영 전 장관과 유기준 장관이 박 대통령에게 실종자들의 사연을 설명했으며 박 대통령은 아무 말 없이 들었다.

박 대통령은 이어 분향소 옆에 있던 실종자 가족의 임시 숙소를 둘러본 뒤 방파제 중간쯤에서 대국민 발표문을 읽었다. 박 대통령은 애초 40분 정도 팽목항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유가족과의 만남이 불발되고 분향소가 폐쇄되면서 20분가량 팽목항에 있다가 이동했다. 박 대통령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들이 항의 피케팅을 하기도 했다. /박지경기자 jkpark@

"한국, 안전사회 멀었다" 진실규명 안되고 각종 안전사고 여전

각국 언론 반응

세월호 참사 1주기인 16일 일본, 중국과 서방 언론들이 관련 기사를 일제히 보도했다.

일본 주요 신문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사고 이후 한국 사회의 대응을 비판적으로 소개하는데 상당한 지면을 할애했다. 아사히 신문은 "유족의 슬픔은 치유되지 않은 채, 진상 규명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전한 사회로 가는 길은 멀다"고 적었다.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는 사고 후 사회 전체의 안전 대책을 내놓았지만 교통기관이나 공공장소에서의 사고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에서 터진 각종 안전사고와 지난 14일 히로시마(廣島) 공항서 발생한 아시아나기 활주로 이탈사고 등을 사례로 열거했다.

중국 언론들도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한국의 추모 분위기를 비중있게 소개했다. 그러면서 세월호 사고가 1주년을 맞이했지만 생존자와 유가족들이 모두 사고의 어두운 그림자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AP통신은 15일(현지시간) 한국인 10명 중 9명이 세월호 참사 이후 공공 안전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는 최근 여론조사를 소개하면서 "한국인들은 세월호 참사 대응에서 나타난 정부의 책임감 결여로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연합뉴스

문학으로 복원되는 희생자들의 삶

소설가 유시춘 등 작가 60명 희생자 261명 약전 발간키로

소설가 유시춘 등 작가 60여명이 세월호 희생 학생과 교사들의 생전 모습을 담아 낸 약전(略傳)을 발간한다.

16일 경기도교육청 안산교육회복지원단에 따르면 도교육청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약전발간 TF 회의는 오는 연말 출간을 목표로 희생 학생과 교사 261명의 약전발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약전에는 유족과 주변인 인터뷰를 통해 희생자의 생전 삶과 꿈 등 간략한 전기가 담긴다. 추모사나 추모시와 같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글도 함께 모을 예정이다. 현재 사업참여를 희망한 작가 60여명이 인터뷰를 진행 중이며, 동화·청소년소설 여성작가가 대거 참여했다. 약전은 소설, 편지글, 희극 등 다양한 형태로 쓰여 학생과 교사 개개인의 삶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게 된다.

분량은 학생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40매, 교사는 80매로 총 12권의 책을 묶어 낼 계획이다.

희생자 한 명 한 명에 대한 간략한 전기인 약전 발간사업은 소설가 유시춘(여·66)씨가 세월호 사고 직후 경기도교육청에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단원고대책특별위원회 약전발간 TF 회의 위원장을 맡은 유씨는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꿈나무들이 죽었다. 사건을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다. 국가의 무능에 가슴이 저리고 기성세대로서 죄책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소설가이자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이사장으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누나다. 261명에 대한 약전 완성본은 오는 12월 말까지 제작해, 내년 초 열릴 단원고 2학년 희생 학생들의 명예졸업식 때 헌정된다.

/연합뉴스

2015년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창업아이템사업화 (예비)창업자 모집

중소기업청 지정 창업선도대학 조선대학교(창업지원단)에서 유망 창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를 발굴하여 성공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15년 창업아이템사업화 참여 대상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원규모
- 정부지원금 : 과제당 최대 7천만원(총 사업비의 70% 한도) 지원

신청자격
- 예비창업자 또는 1년 이내 창업기업의 대표자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5년 4월 6일(월) ~ 2015년 4월 24일(금) 18:00까지
- 신청방법 : 창업넷(www.startup.go.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 희망하는 창업선도대학으로 '조선대학교'를 선택하여 신청
※ 본인 거주지 및 사업장 소재지와 상관없이 창업선도대학 선택가능

선정평가
1단계 서면평가 → 2단계 멘토링 캠프 → 3단계 발표평가

문의처
-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 062) 230-7989, 7990, 7988
- 홈페이지 http://www.chosun.ac.kr/startup

조선대학교 창업지원단

동강대학교 동창회비
총동창회로 이전 공고

동강대학교 6만 동문 여러분의 숙원이었던 총동창회가 2014년 7월 25일 창립총회를 거쳐 출범했습니다.
그동안 동문 여러분들께서 납부해 주신 동창회비는 대학에서 적립해 왔지만 총동창회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 납부당시 목적대로 다음과 같이 총동창회로 이전하고자 공고 합니다.

1. 동창회비 이전기간 : 2015. 5. 14일까지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http://www.dkc.ac.kr (학교 소식란)

2015년 4월 17일

동강대학교 총장

빌려주고 못 받은 돈
회수 해 드립니다.

(금융위원회 99-7호)

세일신용정보(주)는 국내 각 금융권을 대표하는 새마을금고연합회, 삼성카드, 산은캐피탈, 한국캐피탈, 전북은행이 주주로 참여한 믿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 차용증,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이 없는경우
■ 채무자가 타인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강제집행 등 법 조치를 하고 싶은데 채무자의 재산내역을 알지 못하는 경우
■ 채무자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해야 할 때
- 가압류/소송/집행까지
- 전담 법무사와 Non-stop 서비스
■ 민사채권, 물품대금, 공사대금, 미수금 등
● 채권회수는 타이밍 싸움입니다.
● 결정을 미루는 사이 채무자는 재산이전, 폐업, 소재불명으로 이어집니다.
● 빠른결정만이 소중한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비용 無 ☑착수금 無

영업사원 모집

대표전화 : 062) 531-5990 010-2069-5958

세일신용정보(주)